

2018-19 인터랙트 지구대회 10월 27일(토) 마포고서 개최 인터랙트 위원회 회의 개최



2018-19년도 인터랙트 지구대회 개최 준비 회의를 겸한 인터랙트 위원회 모임이 지난 9월 10일 장세호 총재와 김종 사무총장,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경희수 인터랙트 위원장 등 지구임원들과 진형필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등 10명의 인터랙트 지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구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이 날 모임은 오는 10월 27일(토) 마포고 인터랙트클럽(후원 한성RC)의 주관으로 마포고등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2018-19년도 인터랙트 지구대회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2018 김장나눔 봉사 참여, 청소년교환 프로그램 참여 등 금회기 신세대 위원회 사업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

이대부고 인터랙트클럽 박진홍 지도교사의 '아름다운' 정년퇴임식 GSE단원으로 로타리와 인연, 2000년 이대부고 인터랙트 창립 후 20여년간 청소년사업 발전에 숭선수범하고 지난 8월말 28년 교직 생활 마무리

우리 지구 이대부고 인터랙트클럽(후원 서울정동RC)의 지도교사로 20여년동안 활동해온 박진홍 선생님이 지난 8월 29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맞았다.

박진홍 선생님은 1990년부터 교편을 잡고 이대부고에서 28년간 교직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997-98년도 로타리재단 GSE(연구단교환) 멤버로 미국 텍사스주 RI5810지구에 다녀온 것을 계기로 로타리와 인연을 맺은 후, 2000년 11월 이대부고 인터랙트클럽을 서울정동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창립하고 지도교사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숭선수범하는 활동으로 로타리안과 모든 인터랙트 회원들의 귀감이 됐다.

지난 2003년에는 우리 지구의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 더욱 조직적인 인터랙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

우리 지구에서는 박진홍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을 맞아, 총재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스폰서클럽인 서울정동로타리클럽에서는 퇴임식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진홍 선생님이 정년퇴임 이후에 로타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



숙명, 숭실남산, 덕성, 중앙대, 무악, 서울남산 등 6개 로타랙트클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최 어린이 감사편지쓰기 공모 심사에 봉사 참여

중앙대 로타랙트클럽(후원 서울문화RC)을 비롯한 숭실남산, 덕성여대, 숙명여대, 무악, 서울남산 로타랙트클럽 등 6개 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걸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어린이 감사편지쓰기 심사'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심사예 로타랙트 회원들이 나눠서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감사편지를 심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도리어 큰 배움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친구, 부모님, 친척분들께 쓴 편지를 심사하는 봉사였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편지가 많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서투르다고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심사하면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필력이 좋아 눈물을 흘리게 하는 편지도 많았고, 편지를 쓰는 사람, 받게 될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자들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봉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파스해져 오하려 저희가 더 많이 배운 봉사였습니다.

방학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씨 따뜻해지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참가한 모든 로타랙터들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글. 중앙대 로타랙트 회장 오영택



이화여대, 태릉(동덕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남산 등 5개 로타랙트클럽, 여대 클럽 MT 개최

이화여대, 태릉(동덕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남산 등 5개 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8월 8일과 9일 1박 2일로 '여대 MT'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작년에 이어서 신촌에 위치한 하루 라는 파티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조를 이루어 엽기떡볶이와 치킨, 그리고 피자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고, 저와 덕성 회장인 모빈이가 준비한 게임으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여자들끼리만 모인 만큼 더욱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2017년도 여대 회장님들께서 처음 기획한 여대 엠티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깊은 밤을 보냈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대 로타랙터들끼리의 우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여대엠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

글. 숙명여대 로타랙트 회장 박민영





즐거운 봉사, 함께하는 로타랙트

제14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하계대회, 충남 홍성서 개최
3650지구 로타랙터 47명 참가, 스텝으로 3일간 봉사



2018년 제14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가 8월 16일~18일 홍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충남 홍성군 일대 12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 경기대회로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47명의 3650지구 로타랙터들이 참가하여, 경기, 행사 운영·진행을 보조했습니다. 경기는 육상·축구·농구·수영·태권도(시범) 등 12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서 공식 법률로 지정된 이후 스페셜 올림픽 종목에 첫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발달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 행사를 통해 여러 문화를 체험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저를 비롯한 모든 로타랙터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봉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축구종목에서 자원봉사를 맡게 되었는데, 축구경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를 하게 되어 축구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골대 그물을 제작하면서, 단순히 씌우면 되는 것인 줄 알았던 골대그물이 골이 들어갔는지를 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대의 모든 부분을 반드시 감싸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진행된 조별 리그경기과 선수별 개인 훈련 겸 테스트에서는, 각 구역별로 볼보이와 경기결과를 기록하는 기록심을 진행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두 역할 모두 각각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 덕성여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황모빈



기록심을 하면서는 같이 결과를 봐주시던 주심분이 축구 규칙과 기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축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고, 볼보이 역할 때에는 가끔 볼 주우러 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긴 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기록심을 할 때보다 더 보람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볼보이를 하던 도중 경기가 이미 끝나신 다른 팀의 골키퍼 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제가 볼보이를 맡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같이 공을 주워주시고 대신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선수들이 매우 친절하시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은 바로 앞서 잠깐 나온 선수들과 관련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지적장애 선수들과는 처음 만나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봉사 중에 그분들에게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시작하고 직접 선수들을 대면하자마자 그 고민은 바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매우 봉사자들을 존중해주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선수들 덕분에, 그 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는 올림픽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좀 더 진심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경기 시작 전 쉬는 타임에 한 선수팀과 저를 포함한 봉사자 몇 명이 섞여 재미로 축구경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이 경기를 하면서 실제 팀처럼 너무 잘 해주셨고, 봉사자분들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을 잘 보내주셔서 미흡한 실력인데도 자신감 있게 공을 차며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번 그런 좋은 분들을 뵈고 나니 다른 선수들에게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서, 맨 마지막 메달 수여식 때는 시상상을 맡게 된 팀과 같이 대기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 이야기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며 또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선수들 뿐 아니라 선수팀을 담당하시는 코치분들도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훈련을 할 때 볼보이를 하며 보게된 모든 팀들의 코치님들 중 아무도 선수에게 막 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두 선수 개개인의 사정을 알고 그에 맞게 배려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보였고, 경기를 진행하는 중에도 항상 큰 소리로 잘한 선수는 빼놓지 않고 칭찬해주시고 실수한 선수에게는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일일이 말해주는 다정한 코치들의 모습은 정말 봉사자로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코치님들이 계시기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페셜 올림픽은 2박 3일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준 행사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로타랙트로서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로타랙트로서 긍지를 안겨준 “나라사랑, 평화 국토대장정” 강원도 고성~임진각 평화누리공원까지 4박 5일간

글. 송실남산로타랙트클럽 이진호



8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3650지구 로타랙트 회원으로서 (사)한국로타리 청소년 연합이 주최한 ‘나라사랑, 평화 국토대장정’에 참여하여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화도 평화 전망대를 지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까지 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름방학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자 지원했던 국토대장정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화통일 국토대장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국의 각 지구 로타리안들과 로타랙트, 인터랙트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강원도부터 파주까지 DMZ존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 탓에 모두가 지치기도 하였지만 서로 도와가며 힘든 것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날, 속초에 있는 세계 잼버리 수련원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로타리에 대한 퀴즈를

내는 로타리 골든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로타랙트 활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DMZ 펀치볼둘레길이라는 16.2km의 꽤나 가파른 산을 올라갔으며 땅굴과 을지전망대를 관람했습니다.

힘든 산행에 의해 모두가 지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물을 나눠주고 뒤편 사람을 옆에서 이끌어주며 동료애,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무사히 트레킹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도미노 만들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임하였고 먼저 끝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박 5일 동안 여러 프로그램과 트레킹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기에 알찬 방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국토대장정은 앞으로 3650지구 로타랙트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기로 마음을 잡아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145명, 한국생명의전화 주최 '2018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 자원봉사 서포터즈로 참여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145명의 회원들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한국생명의전화와 EBS가 9월 7일(금) 오후 7시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에서 개최한 '2018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 자원봉사 서포터즈로 참여했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이니만큼 여러 부스들과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었고 많은 봉사자와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3650지구 로타랙트 회원들은 운영본부, 행사보조, 부스, 응원단 등 여러 부분에 배정 받아 봉사를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꽤 긴 시간의 봉사였는데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다들 웃음을 잃지 않으며 알차게 하고 왔습니다.

항상 로타랙트로서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지는 경험을 해왔었는데 '생명사랑 밤길걷기' 봉사는 다른 봉사 에 비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는 봉사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자로 행사장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잊고 살았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도 행사 시작 전에 스티커 피켓을 만들며 다시 한 번 왜 '생명사랑 밤길걷기'에 왔는지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는데 참가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 이런 행사에 참여할 생각을 했었는지, 과연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참가자 한 분 한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참가자분들이 본격적으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모습과 사전 부스에서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 곁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는 참가자로 직접 뛰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봉사였고 모두가 따뜻했던 봉사였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물론 참가자들도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글. 이화여대
로타랙트클럽 회장 이푸른

